

1-6월 순이익 호조 “환차익 덕택”

상장기업 외환 순이익 2조7157억원 … 전체 순이익의 17.3% 차지

상장·등록기업의 2002년 상반기 실적을 결산한 결과,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화관련 차익이 사상 최대규모의 순이익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2002년 상반기 외화관련 순이익이 2조7156억4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 495개 상장기업의 2002년 상반기 외화관련 손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2001년 상반기 1조673억6800만원 손실에서 큰 폭의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외화관련 순이익이 상반기 경상이익과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05%, 17.31%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수상운송업(5955억원), 전기가스업(4626억원), 석유정제업(3505억원), 항공운송(2028억원)을 중심으로 외화관련 순이익을 올렸으며 도매중개(-846억원), 종합건설업(-743억원), 담배제조(-237억원), 가구·기타(-71억원) 등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삼성(749억원), LG(87억원), SK(2112억원), 현대자동차(2578억원) 등 4대 그룹의 외화관련 순이익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개별기업별 외화관련 순이익은 한국전력(4530억원), 한진해운(2730억원), 현대상선(2297억원), 대한항공(2028억원), SK(1798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외화관련 순손실은 삼성물산(648억원), 대우건설(420억원), 삼성SDI(261억원), 담배인삼공사(237억원), SK글로벌(191억원) 순으로 컸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외화자산 부채의 실제거래에서 발생한 손익보다 외화자산부채 평가에서 발생한 2조6585억원의 순이익이 대부분으로 원·달러 환율이 2001년 6월말 1297.5원에서 2002년 6월말 1202.5원으로 7.32%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닥 증권시장도 상위 10개 등록기업의 상반기 외화관련 차익이 1351억원 수준으로 코스닥 전체기업 순이익의 8.8%를 차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외화관련 이익이 1965억원, 손실이 1121억원으로 843억원의 차익을 거뒀고, 하나로통신은 159억원의 차익을 냈다. KTF와 LG텔레콤, 세원텔레콤도 각각 27억원과 127억원, 112억원의 차익을 올렸고 텔슨전자는 43억원, 스탠더드텔레콤도 18억원의 차익을 기록했다. 반면, LG파이크론은 50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손실이 커 9억원의 차손을 기록했다.

지분법 평가이익 또는 손실로 수익에 명암이 갈린 기업도 있었다. 기업은행은 481억원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거둬 최대를 기록했고 동서(225억원) 리타워텍(113억원) 세원텔레콤(72억원) 선광(70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분법 평가손실은 3R(80억원) 에이디칩스(77억원) 새롬기술(52억원) 엔씨소프트(48억원) 가오닉스(49억원) 등의 순이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8/ 26 >